

중국이 인도 국경선에 맞닿은 티베트 지역에 성능이 개량된 다연장로켓발사체계를 배치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 체계의 사거리는 16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미사일 분류체계를 적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될 수 있다. 로켓은 연속 발사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미국의 전력 증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육군은 노후화된 무전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미래전을 대비해 관련 업계에 무전기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또 주요 수송헬기인 시누크 헬기가 더욱 진화된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업체들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맹수열 기자

최대 사거리 160km 육박...신형 로켓 장전 모습 공개

중국 지상군이 티베트 군관구에 배치된 개량형 PHL-03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에 더욱 정확한 신형 장거리 로켓을 배치했다. 중국 국영 CCTV는 최근 PHL-03 MLRS에 장착된 300mm 발사관에 신형 로켓이 장전되는 모습을 방송했다.

CCTV는 이 신형 로켓의 사거리가 표준 로켓보다 30km 더 길다고 주장했다. PHL-03 MLRS는 최대 사거리가 약 130km인 무유도 BRC4·BRE2 로켓과 파이어 드래곤(Fire Dragon) 140A 유도로켓을 사용하고 있다. CCTV의 주장대로라면 신형 유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160km에 육박한다. 방송은 또 티베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포병부대가 연속으로 로켓을 발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도 담았다.

전문가들은 PHL-03 MLRS의 외부는 많은 개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CCTV가 “PHL-03 MLRS는 수준 높은 정보·첩보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개량형 발사통제장치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CCTV가 공개한 PHL-03 다연장로켓의 발사 장면.

출처=jans.com

고 보고 있다.

CCTV는 PHL-03 MLRS가 몇 대 개조돼 새로운 로켓을 무장하고 있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또 중국 지상군이 이 신형 무기체계를 언제 배치하기 시작했는지도 불명확하다.

CCTV는 또 신형 4×4 트럭에 기반을 둔

MLRS도 공개했다. 122mm BM-21 Grad MLRS의 중국형으로 보이는 이 무기체계도 티베트 군관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4×4 트럭은 중국 지상군의 HJ-10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형 대전차 유도미사일(ATGM) 체계와 PCL-161로

불리는 신형 122mm 자주곡사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보도는 중국 지상군이 MLRS를 통해 교전능력을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무인항공기 등 강력한 정찰체계와 센서·타격수단 주기를 단축하는 포병관리체계와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CCTV의 주장대로라면 신형 로켓은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PHL-03 MLRS는 중국 지상군의 집단군 포병여단이 운용하고 있다. 여단의 2개 대대는 PHL-03 MLRS 24문을 비롯해 다양한 재래식 포병자산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PHL-03 MLRS와 4×4 트럭에 기반을 둔 MLRS는 티베트 군관구 85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히말라야 지역 실제 통제선을 따라 중국과 인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육군, 무전기 현대화 추진

회복력 강한 신규 파형 미래전 대비 개발

미 육군이 노후화 무전기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 기술개발을 요청했다. 미 육군 전술·지휘·통제·통신사업단은 최근 신규 무전기와 단일채널 지상·공중 무전체계(SINGARS)에 대한 기술적 성능개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이 공개한 정보요청서에 따르면 미 육군은 SINGARS의 신규 주파수 도약, 비화 기능 현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원하고 있다. 또 단일·이중 탑재형 차량용 무전기, 개인 휴대형 무전기의 성능 개량도 요청했다.

미 육군은 현재 미래전에 대비해 한층 회

복력이 강한 신규 파형(waveform)을 개발하고 있다. 육군은 데이터 전송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도 원활히 화력을 지원하고 공중을 장악하기 위해 SINGARS 무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SINGARS 무전기의 현대화 요구사항의 정의와 획득 전략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말에는 입찰요청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요청서(RFI)에 따르면 미 육군은 2024 회계연도나 그 이전에 무전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육군이 고려 중인 전투무선망(CNR)



미 육군이 노후화된 무전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미군 장병이 무전기를 이용해 통신하는 모습.

출처=c4isrnet.com

솔루션에 단일목적·단일대역·단일목적·다중대역 소프트웨어 정의 무전기(SDR)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SDR은 다양한 전환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방형 하드웨어 플랫폼과 운영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무전기에 소프트웨어 웨이브폼을 업데이트

트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 탑재해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무전기는 물리적 구성품을 통해 구성됐던 무선 신호처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변환시킴으로써 주파수 동작 범위, 변조방식 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육군, T408 엔진 CH-47 헬기 최초 비행

출력 높은 엔진 장착 타당성·위험성 평가

미 육군이 GE에비에이션의 T408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한 CH-47 시누크 헬기의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

시험비행은 보다 출력이 높은 T408 엔진을 시누크 헬기에 장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기술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이뤄졌다. 시험에는 미 육군과 시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GE에비에이션이 참여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공중 제자리비행, 회전시험 등이 포함됐다.

T408 엔진의 출력은 7500마력으로 현재 CH-47 헬기에 장착된 허니웰의 T55 엔진보다 56% 더 높다. GE에비에이션은 원래 미 해병대의 CH-53K 킹 스텔리온 대형수송헬기를 위해 T408 엔진을 개발했다.

허니웰 역시 시누크 헬기를 위해 출력이 향상된 T55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T55-GA-714C로 이름 지어진 이 엔진은 6000마력을 낼 수 있다. 허니웰은 이 엔진이 T408 엔진보다 25% 정도 출력이 낮지만, 더



GE 에비에이션의 T408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한 CH-47 시누크 헬기가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flightglobal.com

효율적이며 항공기 기체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장착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시험 데이터를 검토한 뒤 새로운 엔진을 시누크 헬기에 통합하는 것의 타당성

및 위험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몇 대의 시누크 헬기를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 장착할지, 그리고 신규 헬기 몇 대를 제작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